



# 한울림 교회

##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 섬기는 사람들

전도사

차유미

목사

김원재, 양명철, 한성욱

오전 11시

교회소식

선교기도

찬양\*

기도인도

봉헌\*

말씀교독

특별찬양

말씀선포

찬양과결단\*

축도\*

## 주일예배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인도자

박미경(태국)

다같이

최옥경

다같이

다같이

사마임찬양대

양명철

다같이

설교자

5월의 선교사를 위한 기도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찬 456)

깊어진 삶을 주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만 가지 은혜를(찬 216장 4절)

로마서 12:1-2

평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나의 영원하신 기업(찬 435)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2. 다음 주일(6/6)은 성찬주일입니다. 각 가정에서도 빵과 포도음료를 준비하셔서 영상으로 성찬식을 진행할 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3. QT책 6월호가 나왔습니다. 구입하셔서 큐티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의-박순정)
4. 인종차별 및 혐오범죄 대응을 위한 책자가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후 한권씩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핫라인 전화번호: Tel. 646-450-8603
5. 5월 한 달 동안 한울림교회 비전과 예배당 건축 완공을 위한 릴레이 금식기도가 있습니다. 릴레이 금식기도를 신청하신 분들은 게시판에 표를 작성했으니, 자신이 신청한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셔서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예배에 못오시는 분들도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문의-정주애)
6. 예배당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공서와 전기공사의 사무처리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공사의 안전과 과정이 신속히 진행되어 속히 준공검사를 마치고, 입당하도록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건축헌금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은 계속 정성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7. 새벽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월~토)에 Zoom을 통하여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단 토요일은 현장기도회와 영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Zoom ID: 3213210608 / PW: 0608
8.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토 6:30PM, 주일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도의 수단으로 삼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 함께 가는 길 - 차유미 -

지난 2월 아동부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대해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언약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사실 자기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동부의 모든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서 예배가 교회가 성경이 익숙한 아이들입니다. 같은 본문의 설교를 여러 번 들어 성경이 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런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 마음 속에는 정말 믿음이란 것이 있는가?’ 하는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아닌 것 같다’ 라는 결론을 내렸고, 용기 있게 그 마음을 열어놓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열어 보이자 해답을 찾는 길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용기 있게 네 마음을 말해주어서 고마워. 그렇게 속 마음을 이야기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 이제 그동안 몰랐던 네 마음을 알게 되어서 도와줄 방법을 함께 찾을 수 있어. 지금 전도사님이 너에게 ‘이게 답이야! 이걸 믿어야 해!’라고 강요하지 않지만, 앞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너와 얼마나 친구가 되고 싶어하시는지 같이 해답을 찾아보자.” 이러한 고백 이후 아이의 예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을 알게 된 아이는 더욱 논리적으로 성경에 접근하고자 했고, 궁금한 내용들을 거침없이 질문했습니다. 찬양과 기도를 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성장이 눈으로도 보였습니다.

어른이 될수록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내어 놓는 것이 어려워지고, 흔들리는 자신을 마주하기 힘이 듭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믿음을 마주하고 진단 하는 것은 부족함이 아닙니다. 깊어지는 과정이지요. 그렇게 힘들고 더디지만 조금씩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노력, 나의 상태를 인정하고 재정비하며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길을 혼자 갈 때 외롭고 지치기도 합니다. 그 때 함께 손잡고 그 길을 같이 걸어갈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어 주세요, 언제나 내민 손을 잡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한울림교회 교인입니다.